

요약

유럽은행감독청(EBA)은 2025년 8월 은행의 암호자산 위험노출에 대한 자기자본요건의 산출 및 집계 방식을 구체화한 최종 규제 표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을 발표함. 해당 RTS는 암호자산 유형별 위험가중치와 위험노출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EU 은행권의 과도기적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를 보완하는 핵심 조치로 평가됨

- 유럽은행감독청(The 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2025년 8월 암호자산에 대한 위험노출액의 산출 및 집계 방식에 관한 최종 규제 표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이하 'RTS')을 발표함¹⁾
 - 이는 CRR(Capital Requirements Regulation) 3 제501d(5)조²⁾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은행이 암호자산 위험노출액에 대한 자기자본요건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³⁾
 - MiCAR(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⁴⁾ 시행, 바젤위원회의 암호자산 건전성 기준, EU 은행의 암호자산 관련 활동 확대 등을 반영해 규제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2024년 7월 9일 발효된 CRR 3는 암호자산에 대한 '과도기적 건전성 규제'⁵⁾를 마련했지만, 위험노출액 산정 방식과 자본규제 계산 방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한계가 있었음
 - 이번 RTS는 그동안 미비했던 세부 산정 기준을 보완해 EU 암호자산 과도기 건전성 규제를 구체화함
 - 또한 EU의 최종 암호자산 자본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은행의 자본적정성 유지와 리스크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연결 규제로 기능함
- 암호자산 익스포저는 CRR 3의 기준에 따라 위험 수준별로 세 개의 규제 구분(버킷, Bucket)으로 분류되며, RTS는 이 중 제2·제3버킷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와 산정 기준을 구체화함
 - 제1버킷은 주식·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한 자산(토큰화 증권, 전자화폐토큰(EMT) 등)으로 구성되며, 기초가 되는 전통자산과 동일한 자본규제를 적용함
 - 제2버킷은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R) 요건을 충족하면서 특정 자산이나 통화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자산연계토큰(Asset-Referenced Tokens; ART)으로 구성되며 위험가중치 250%를 적용함

1) Freshfields(2025. 8. 31.), "EBA Publishes Final Draft RTS: A New Step Towards Harmonising Crypto Asset Exposures"

2)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자기자본요건 산출 방식과 집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EBA가 규제기술표준(RTS)을 마련하도록 위임한 조항임

3) European Banking Authority(2025. 8. 5.), "The EBA publishes draft technical standards on the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 asset exposures under the Capital Requirements Regulation"

4) 암호자산의 발행·유통·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가, 공시, 투자자 보호 기준 등을 규정한 EU의 포괄적 암호자산 시장 규제 체계임

5) EU의 최종 암호자산 자본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임시 자본규제 체계로 은행의 암호자산 위험노출에 대한 자기자본 적립 기준 등을 규정함

- 제3버킷은 비트코인과 같이 전통자산과 연계되지 않은 일반 암호자산으로 구성되며 1,250%의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총 익스포저는 은행 Tier 1 자본⁶⁾의 1% 이내로 제한됨
 - 은행은 동일한 암호자산에 대한 매수(롱)·매도(숏) 포지션을 각각 합산한 뒤,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위험노출액을 산정하며 이때 상계를 통한 위험 축소는 허용되지 않음

○ 유럽은행감독청의 RTS는 제2·제3버킷 암호자산에 대해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자본규제 산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함

- 자산연계토큰(제2버킷)의 경우 기존 은행 자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본규제를 적용하되, 일반 자산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함
 - 은행은 기존 표준법(Standardised Approach)⁷⁾ 또는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⁸⁾ 방식으로 위험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자산연계토큰의 위험가중치는 일괄적으로 250%를 적용하며, 금융담보로는 인정되지 않음
 - 파생상품이나 증권금융거래에서도 일반 금융자산보다 엄격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Counterparty Credit Risk) 기준을 적용하며, 담보를 통한 위험 감소 효과는 제한적으로 인정함
 - 시장리스크는 거래계정 기본 검토(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⁹⁾ 시행 전까지 기존 시장리스크 표준법을 적용하고, 향후 거래계정 기본 검토가 도입되면 개정된 체계로 전환할 예정임
- 제3버킷 자산에는 높은 자본요건 외에도 담보 인정 제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보수적 산정 방식 등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됨
 - 금융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리스크 경감 효과를 활용하기 어렵고, 파생상품 및 증권금융거래에서도 제한적인 위험 경감만 허용됨
 - 이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암호자산에 대한 은행의 과도한 투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한편 바젤위원회는 암호자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음¹⁰⁾

- 바젤위원회는 2025년 말부터 암호자산 건전성 기준에 대한 일부 항목 재검토를 개시했으며, 암호자산 관련 위험 노출 확대 가능성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건전성 규제가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음
 - 주요 검토 대상에는 위험가중치, 위험노출 한도, 자본규제 적용 방식 등이 포함됨
 - 향후 바젤위원회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EU 은행권의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체계도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6) 규제 기관의 관점에서 은행의 재무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핵심 척도로 핵심 자본으로 구성되며 주로 보통주와 공개된 준비금(또는 유보이익)이 포함됨

7) 감독당국이 정한 위험가중치와 산정 기준에 따라 은행이 위험노출액을 계산하는 방식임

8) 은행이 자체 산출한 부도 확률, 손실률 등을 활용해 위험노출액을 계산하는 방식임

9)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가 도입한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개편 체계로, 은행의 거래계정 자산에 대한 위험 산정 기준을 보다 보수적으로 강화한 제도임

10) BIS(2026. 2. 25.), "Basel Committee discusses recent market developments and targeted review of cryptoasset standard"